

AUTHOR 김준현

TITLE 갈땀의 경제사상

IN 신학과 사회

vol.15 (12, 2001) : 257-278

갈뱅의 경제사상

김 준 현*

〈目 次〉

- | | |
|------------------|--------------|
| 1. 서 론 | 5. 상업에 대한 사상 |
| 2. 갈뱅의 인간관과 사회관 | 6. 이자에 대한 사상 |
| 3. 재물에 대한 사상 | 7. 요약 및 결론 |
| 4. 노동과 임금에 대한 사상 | |

1. 서 론

오늘날 우리의 경제생활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촌 저쪽 끝에서 일어난 경제적 사건이 곧 바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본의 이윤추구 논리에 입각한 자유화, 개방화가 꾸준히 추구되어 그 마지막 단계에 다 다르게 된 결과이다. 상품교역에서부터 추구된 자유화와 개방화는 이제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자유화를 거쳐 자본시장의 개방화와 자유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일반 상품은 물론이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도 국경선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 1997년 말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도 이러한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흐름에서 그 중요한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활동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완전히 개방화, 자유화된 현상을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질서는 무한 자유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 남기 어렵게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가장 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판매한다는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전략은 생산기지를 인건

* 본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부교수

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낳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의 임금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 간은 물론이고 국가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도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세경감은 정부의 사회보장비지출의 축소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직장의 불안정화를 가져오고 임금수준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부분별한 개발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이 지구를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공장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오폐수들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공장과 자동차 등에서 뿜어내는 배연은 공기를 오염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현상과 오존층을 파괴시킴으로써 생태계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구 환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말미암아 21세기에는 지구 생물의 50%가 멸종될 수 있다고 한다¹⁾.

또한 경쟁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의 추진은 고갈성 자원의 남용을 초래하여 인류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화석연료는 45억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생성되었지만 우리 인류가 대규모로 소비한 결과 불과 100여 년만에 고갈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세계의 에너지 자원은 석유가 46년, 석탄이 217년, 천연가스가 65년 후면 고갈된다고 한다.

요컨대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무한정한 이윤추구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 자원의 고갈문제 등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 재물이 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재물을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적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성경에 입각한 경제생활을 해야 한다.

기독교사상사를 훑어 볼 때 성경에 입각한 경제생활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 신학자들은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갈뱅의 경제사상은 자본주의의 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갈뱅의 사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논리에 따라 500여년 동안 발전해 오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갈뱅의 경제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

서로서 기독교인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본 논문은 먼저 갈뱅의 경제사상의 바탕이 되는 그의 인간관과 사회관을 살펴볼 것이며,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사상, 노동과 임금에 대한 사상, 상업에 대한 사상, 이자에 대한 사상 등을 차례로 살펴본 후에, 결론으로서 이러한 갈뱅의 경제사상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갈뱅의 인간관과 사회관

(1) 인간관

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갈뱅의 인간관은 프랑스의 독특한 인문주의를 그 토대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인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복고주의는 유대 및 기독교 문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재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간중심주의를 완전히 배격했던 것은 아니며, 인간중심주의도 신중심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아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갈뱅은 이러한 프랑스 인문주의의 토대 위에서 인문주의의 놀라운 발전들과 신학의 독특한 가르침들을 아주 자유롭게 결합시킬 수 있었다.

갈뱅에 있어서 복고주의는 인문주의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문주의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차원을 첨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갈뱅은 순수하게 인간중심적인 지식에서 떠나, 중심에 하나님의 신비가 자리잡고 있는 완전한 인간 지식으로 옮겨갔다. 요컨대 갈뱅의 학문은 신학적 사회적 인문주의였으며, 그 안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을 통해 획득된 인간의 지식이 내포되어 있었다.

갈뱅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좀더 깊고 본질적인 지식을 산출해내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본성의 궁극적인 정체를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다. 이러한 비판주의가 갈뱅의 복음주의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낼 수 있다.

1) 연합뉴스의 2000년 3월 4일자 환경뉴스. 연합뉴스는 내이처지 2000년 2월 24일자에 실린 미국 환경연구보전 센터의 스텐트 펄 박사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였다.

②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은 죄인이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인간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 지혜, 선하심이 번득이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휘관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창조주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만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한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종일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인간이 자아와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순간 인간은 자유를 상실하고 만다. 그때 인간은 세사, 자아, 본성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칼뱅이 복음서에서 비관주의적 인간관만을 추출해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간들 사이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한 인간이 있음을 알았다. 이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야답이요, 영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인간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인간이며, 창조주의 완전한 형상이다. 그는 인자인 동시에 그 안에 성령의 거룩한 권능이 살아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유로운 사랑의 때에 의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참된 인간,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 완전한 인성을 소유한 인간을 나타내 보이셨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오직 이 완전한 피조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회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회개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연합함으로써 인간은 새로운 성품을 얻는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실존은 사실상 부분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 이 새 성품은 성화를 통해 인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지만 죽을 때까지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는 장차 다가오는 세계 안에서만 완전히 회복된 인간성을 알게 될 것이다. 신자는 용서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죄인이며, 거듭난 죄인이지만 죽는 날까지 죄인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며, 칼뱅이 복음서에서 발견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사람은 날마다 자아와 싸우며, 그의 인간성을 더럽히는 세속의 힘들과 싸워야 한다. 인간은 그의 인간성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비인간성과 싸워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비인간성과 싸우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투쟁이며, 이를 포기할 경우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게 된다. 또한 인간은 자아에 대해 엄격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훈련이다. 기도와 엄격하고 지속적인 개인 성경연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과 연합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사상과 마음과 육체를 정복함으로써 성령이 자신의 인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자유 안에서의 금욕주의이며, 자기 자신을 소유하기 위한 자율적인 자제이다.

(2) 사회관

① 인간의 타락은 사회를 타락시켰다.

칼뱅은 이와 같이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주목했지만 또한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성찰을 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동료 인간들과 협력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료의식은 본성적인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 먼저 부부관계 안에서 표현되었고, 그 뒤에 가족공동체 안에서 보충되었다. 이 동료의식은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경제적 상호교류를 함으로써 완성된다.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노동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자신의 노동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보완해 주어야 할 의무도 또한 부과 받았다. 이로 인해 분업관계가 발생하며, 이 안에서 인간의 교제가 표현된다.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이러한 본래적인 사회질서 또한 타락시키고 말았다. 인간은 자유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써 자아를 파멸시켰고 사회관계의 본질을 변화시켜 버렸다. 우리의 사회는 해체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사악해져 있는 사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는 하나님이 고안하셨고, 오늘날도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저 본래적 사회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회이다. 그러면 본래적 사회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② 사회의 회복은 참된 교회공동체의 형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본래적 사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교회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참된 교회공동체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한 남녀들로 구성된 사회이다. 개별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와의 접촉과 교제를 통해 새로운 인간성을 부여받은 인간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을 통하여 거듭난 신자는 이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즉 교회공동체가 사회 구성구성에 존재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잉태하고, 이 안에서 지난날 왜곡되었던 사회관계는 그 원래의 성품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교회공동체 안에서 인간들은 복구된 사회질서, 즉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회의 모습을 재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형상은 단편적일 뿐이다. 왜냐하면 죄는 언제나 모든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같이 새로워진 사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

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회에서는 인간들을 분열시키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파괴하는 모든 사회적 차별, 즉 남녀의 차별, 인종의 차별, 빈부의 차별 등을 철폐한다.

③ 회복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질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의 회복은 신자들의 공동체 및 교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나 갈뱅은 세상은 제갈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면 완전한 혼돈상태로 빠져버리고 만다고 생각했다. 교회가 도래하고 옛 인간성 속에 새로운 인간성이 탄생하는 것만으로는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거스릴 수 없다. 만물이 무질서와 혼돈에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질서를 주셨는데, 갈뱅은 이것을 정치적 질서라고 불렀다. 이 질서는 개인들을 지배하는 외면적이고 인습적인 도덕법칙과 정부기구를 통해서 강요되는 국법으로 구성된다.

이 정치질서는 시간의 마침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인 질서에 지나지 않는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야 인류는 비로소 그 질서의 원래적 성격을 알 수 있다. 그 때에 인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함으로써 사회적 평화 속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사회는 이 마지막 날의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 잠정적 질서인 정치질서, 즉 인위적 체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정치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정치질서는 가능한 한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야 한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발달 수준에 달려 있다. 만약 국가의 정치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갈뱅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정치체제하에 있든지 국가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는 언제든지 거역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박탈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라고 갈뱅은 역설한다. 갈뱅이 주장한 저항권은 국가에 복종하라는 기독교의 명령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종의무의 한계를 밝혀준다. 기독교인들은 어느 시대와 환경을 막론하고 오직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므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복종은 파생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갈뱅의 인간관과 사회관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생활에 대한 갈뱅의 사상을 살펴보자.

3. 재물에 대한 사상

① 16세기 유럽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6세기의 서구사회는 대단히 소란스러운 사회였다. 개인적인 이권획득에 혈안이 된 많은 군주들이 백년전쟁, 부르군디전투, 이태리전투 등 군사적인 유혈투쟁을 벌임으로써 유럽사회는 끊임없이 황폐해져 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상적, 종교적으로도 크게 변화를 겪음으로써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역사적인 경험을 했다.

먼저 과학과 기술의 발전 및 항해술의 발전에 힘입은 신대륙의 발견은 유럽으로 엄청난 양의 금이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산업이 잉태되었고 교역도 활발해졌다. 이처럼 엄청나게 증가된 경제활동은 새로운 상사(商社)체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통제되지 아니한 자본주의가 새로 발전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나갔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말미암아 생계비는 엄청나게 치솟은 반면 노동력의 가치는 하락하였고, 도시와 시골에서는 무산계급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다수의 임금노동자들이 출현하였다.

한편 인쇄술의 발전으로 학문과 사상이 일반 평민들에게도 보급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복음이 지닌 확산과 변혁의 영향력이 평민들의 의식을 일깨웠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누룩은 신자들에게 진리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은 교회와 사회 내면의 뿌리깊은 불만의 독을 터뜨려 급진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갈뱅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② 재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1553년까지만 해도 갈뱅은 카톨릭 중산계급의 특징이었던 단조롭고 인습적인 생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갈뱅은 새로운 사상과 지성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전통을 뒤엎는 일을 두려워했고, 종교적 신앙과 사회는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개인윤리의 차원을 떠나서는 아무런 상호의존이나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일단 개종한 뒤에는 왕과 지배계층이 위험한 혁명분자이며, 폭도들이라고 간주했던 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다. 갈뱅에게 있어서 신앙과 세상은 두 개의 분리된 영역이 아니었으며, 세속 도시에 대한 관심이 그의 기독교 신앙의 직접적인 표현이었다. 재물에 대한 갈뱅의 사상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갈뱅은 성경에 근거하여 물질적인 재산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이라고 역설한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부를 인간의 수중에 두심으로써, 인간으로 하

여름 자신의 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이 생명을 부여해 주는 아버지가 심을 나타내신다. 돈은 이러한 재산을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돈은 공리주의적인 기능과 영적인 사명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존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다. 따라서 돈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돈은 믿음을 통하여 그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은총의 표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표시인 것이다.

돈은 항상 사람을 시험에 빠뜨린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상태에 빠졌을 때 그들의 믿음의 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꾸려 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 덕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하나님은 풍요와 번영을 통해서도 인간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아주 부유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돈에 미혹되어 돈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독립된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된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가치기준에 따르면 인간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는 그의 재산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칼뱅에 의하면, 복음은 개인이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떤 이는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더 적게 가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인간이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적 존재이다. 이러한 연대성은 상품과 용역의 상호교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인간들 사이에 부가 불균등하게 배분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회생시키면서 다른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불균등은 끊임 없는 재산의 재분배를 촉발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 부유한 자들로부터 더 가난한 자들에게로 재분배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회적 삶은 인간의 상호 보완성과 의무적 연대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삶의 모습이 자연적 단계에서 표현된 영역이 노동분업에 따른 경제적 교류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부의 순환에는 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 사랑에 의해 유발된 사심 없는 선물이 부유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로 전달된다.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관에 의하면 부유한 자는, 그가 어느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든지 그의 이웃에 비해 특권을 받은 위치에 있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보다는 더 부유할 수 있다.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경제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사용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가난해지지 않게 되고 부유한 자가 부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

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돈의 노예상태로부터 해방시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조직된 사회 안에서는 재물의 상호교환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교환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는 있다. 칼뱅은 사회 내에서의 이 같은 부의 상호교환을 매우 강조하였다. 그 한 본보기로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의 재분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재분배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 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차등화된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칼뱅은 부유한 자를 "가난한 자의 공복"이라 부르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이 위로하는 자"라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의 신앙과 사랑을 시험하시기 위해 가난한 자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③ 인간의 타락으로 재물이 신이 되었다.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인간은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의무가 인간들의 사악한 마음과 죄의 결과로 인해 유기되었다. 그리하여 재물이 악의 도구가 되었으며, 악과 결탁하여 피조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재물이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신이 된 재물의 위력을 "맘몬(Mammon)"이라고 부른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재물을 숭배하도록 만든다.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재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를 허용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두 영역으로 구분한다. 한 영역은 모든 인간들의 헌신이 바쳐져야 하는 영혼의 영역이며, 다른 영역은 인간의 모든 소유를 포괄하는 물질의 영역이다. 이 두 영역을 철저히 구분시킨다. 이러한 이원론은 지극히 이교적인 것으로서, 교회 내에 이러한 이원론이 침투해 들어올 때 교회는 재물의 신에게 복종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재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게 되면, 그리고 신앙과 예배의 생활 속에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이것들은 재물의 신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교회와 사회가 잇달아 타락하게 되었다. 경제생활에 많은 방해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사회적 무질서가 초래되었다. 이기적인 부의 소유, 매점, 매석, 독점, 탐욕, 낭비, 방탕, 사치, 경박성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화로운 교역과 물질적 부의 균등분배를 가로막았다.

④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날 때 재물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사회가 무자비할 정도의 무질서 상태로 타락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공정한 인간관계를 재확립하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부활로 승리할 때까지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악에 대항하여 싸우셨고 승리하셨다. 인간 예수는 부유한 주의 위치에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으며, 세상의 모든 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했다. 갈뱅은 이러한 인간 예수를 사회인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인간 예수를 본받을 때 세계가 사회·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구성된 진정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회복된 사회의 가장 훌륭한 모범을 발견할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한 인간은 다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재물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재물은 사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재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되고 이웃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재물을 정복해야 한다. 재물에 대한 이러한 재발견은 인간에게 개인적인 단계에서의 엄격한 훈련, 즉 금욕주의를 요구한다.

갈뱅은 매우 독특한 형태의 금욕주의를 주장했다. 중세시대의 금욕주의는 금욕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공로주의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금욕주의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덕택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금욕주의는 이러한 구원의 결과로서 요구되는 것이지 구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서 경배를 드린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재물을 드리는 행위는 영적 행위이며 예배 행위이다. 신자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림으로써 재물의 신이 왕좌를 박탈당했음을 확인하며,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드러내고, 자신이 믿는 주님이 그의 삶 전체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교회는 명확한 공공행위를 통해 주님께서 재물의 악한 영적 권능을 박탈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셨음을 선언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재물의 기능이 다시 발견되면 사회에서 즉각적인 반향이 일어나게 된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들 사이에 확립시켜 놓으신 새로운 영적 연합이 그들의 물품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와 같은 재분배는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들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연합하여 살아갈 때, 그와 같은 물품의 상호 교류가 뒤따르게 되고,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중개수단이 확

립된다. 이 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현격한 격차는 사라진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자율적인 물품의 재분배라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재분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질서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부의 균등한 소유를 재정립시켜 준다.

⑤ 국가는 경제생활의 선한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독교인들이 재물이 지니고 있는 봉사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면, 그 재물은 사회 안에서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갈뱅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단체가 국가라고 생각했다. 갈뱅의 가르침에 따르면 국가는 죄인들에게 명령을 통해 통치할 사명을 가진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교인들 사이에 재정립하는 것과 같이 국가는 부분적으로나마 이 질서를 사회 전체 안에 다시 회복시키는데 주력해야만 한다.

갈뱅이 이해한 이와 같은 국가의 정치적 사명은 경제에도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함을 뜻한다. 국가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생산자의 입장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과 부의 분배를 감독함으로써 이 사명을 수행한다. 만일 국가가 이러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죄악이 경제생활의 선한 기능을 파괴할 것이다. 매점과 매석이 상품의 유통을 가로막고, 낭비가 사회로부터 부를 앗아갈 것이다. 국가는 사회가 물품의 사용을 적정한 선에서 억제하고 사회적 상부상조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²⁾.

부와 관련한 국가의 기능에 대한 갈뱅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가는 질서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한편이 회생되면서 다른 한편이 재산을 획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재산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갈뱅은 상품의 소유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4. 노동과 임금에 대한 사상

(1) 노동에 대한 사상

①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노동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사용하여 피조물들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인간이 노동을

2) 제네바의 그 유명한 소비억제법은 이러한 갈뱅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일치되게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행위가 의미를 갖는 까닭은, 그것이 올바르게 행해졌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삶을 떠받쳐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행위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타락하였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노동을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행위는 즉각 고통, 염려, 부정, 억압의 근거가 되어 버렸다. 노동이 다시 진정한 노동이 되고,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 억압이 아닌 봉사되려면, 또한 노동자에게 만족을 주려면, 인간의 일이 다시 하나님의 일과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뜻에 따른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일의 경영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

② 노동의 존엄성은 인간의 성화를 통하여 회복된다.

휴식과 안식일 및 성화의 진정한 의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휴식을 주신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하나님의 노동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갈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7일에 하루씩 쉬도록 해주신 것은 그 날에 인간들이 다른 일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마음을 창조주를 깨닫고 인식하는 일에 좀더 자유롭게 바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교제를 가능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회개를 거쳐 교회의 연합에 몸소 참여해야 한다. 인간은 이렇게 해서 성화된다. 즉 인간은 성화됨으로써만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는 안식일에 일어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가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활동하시므로 인간의 성화는 부활하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일어난다. 따라서 안식일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성화를 위하여 특정한 날을 정하여 모인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즉 주일을 택하여 모였다.

인간은 개인의 성화와 공동체의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재구성된다. 인간의 노동이 다시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고, 동시에 인간은 이웃과의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위대한 일 안에 재통합된 노동은 다시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것으로 변화된다. 즉 노동이 억압의 수단이나 분열의 기회로 악용되지 않게 된다. 인간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말미암아 성화될 때 노동은 그 존엄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더럽히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된 성화를 비롯한 결과를 초래하며, 노동 타락의 근거가 된다.

③ 인간은 노동하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간다. 인간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과의 연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대립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손을 축복하시며 게으른 자의 손을 저주하신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인간은 노동 없이는 인간다워질 수도 없고,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실업은 철저히 없애버려야 할 사회악이다. 실업은 사실 인간의 생명을 박탈해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갈뱃은 다른 사람들을 혹사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노동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주지 않는 부자들의 잔인함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갈뱃의 노동에 관한 원리는 이전의 사상에 비해 혁신적인 것이었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기독교 교리에 입각하여 노동이 신앙생활과는 무관한 세속적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갈뱃은 노동을 기독교인의 삶과 엄격히 연관시켰다. 그는 복음이 노동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갈뱃은 인간의 활동에 이전에는 전혀 인식되지 못했던 정신적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했다. 이러한 갈뱃의 노동에 대한 사상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를 제공했다.

(2) 임금에 대한 사상

① 임금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다.

갈뱃은 임금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로부터 이해한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말미암은 은총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의무를 완수하든 우리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의무에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의 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신다. 노동에 대한 임금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총이다.

따라서 임금은 신성한 것이다. 임금은 인간의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활동하시면서 자녀들을 구속하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임금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인간이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된다. 이웃의 임

금은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부여하신 것을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임금을 압수하거나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② 정당한 임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임금이다.

그러면 정당한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가? 임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받아야 한다. 그 같은 생각이 정당한 임금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다같이 자신들이 받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임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호 동의함으로써 임금의 액수가 결정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임금에 대한 영적인 이해는 오직 신앙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관한 이러한 이해가 무조건 통용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바른 가격이란 흔히 시장가격이나 또는 정부 당국이 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 규범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이 세상의 사회적 무질서를 고려할 때 인위적 표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관습과 법률은 다소간 이러한 무질서를 반영한다. 객관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깎쟁은 노동력이 포화상태에 있을 때 일가족이 정상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 이하로 임금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그들의 임금을 깎아 내리는 행위는, 비록 그들의 임금을 착복하는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잔인한 행위이며, 가난한 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깎쟁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싸움들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임금협정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집단계약을 구상하기도 하고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깎쟁은 착취 받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종종 노동자들의 불순종을 착취자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비폭력 저항과 파업을 반대하지 않았다.

깎쟁의 임금에 대한 이해는 매우 독특하다. 깎쟁은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상의 보수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적절한 임금의 문제를 직접 성경적인 관점으로부터 파악했다. 이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가설적인 자연법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규범을 확립하려고 노력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따라서

임금은 단지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표준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권위를 부여받은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감안해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이는 임금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허용하는 것이지만, 깎쟁은 임금이 반드시 계약에 의해서 보증될 것과 최종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만 국가의 중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상업에 대한 사상

① 상업은 상호 협력적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한 가지씩 특별한 과업을 맡기시고, 이를 통해 서로 서로 봉사하며 살도록 하셨다. 즉 노동의 분업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노동의 분업은 인간들의 독립성을 보여 주며, 인간들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한다. 노동의 분업은 인간들이 상호 의존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각 개인들이 서로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상업은 이러한 노동의 분업화를 보충해 주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교역은 사회의 각 지체들이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설정하신 조화로운 사회질서를 구체화시키는 데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역의 직접적인 목표는 각 사람에게 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교역은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 인간의 삶을 쾌적하게 해주어야 한다.

② 파괴된 상업질서는 복음에 의해 회복된다.

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적에서 이탈되면 그 성격까지 급격히 변화된다. 사기와 부정은 경제관계를 사실상 마비시키며, 교역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사회질서를 붕괴시킨다. 사업상의 부정적은 인간의 윤리성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지닌 본래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상품과 용역을 배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복음의 전파는 인간을 상업적 업무에 보다 적합한 존재로 변화시킨다. 거듭남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은 억지로 법에 복종하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자발적으로 법에 복종하게 되며, 자유의 윤리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정상적인 교역의 조건을 다시 찾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게 된다.

③ 국가는 질서유지를 위해 상업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위와 같은 복음전파에 의한 인간들의 거듭남은 교회와 사회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현 세계에서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며,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는 제도적으로 상업활동을 통제해야만 한다. 국가는 법을 통해 공정한 계약, 건전한 화폐제도, 올바른 추와 저울의 사용 등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투기, 매점, 매석은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주된 형태들로서 16세기에는 보편화되어 있었다. 당시 상인들은 날마다 폭등하는 물가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매점 매석을 하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갈뱅은 매점 매석을 하는 사람들을 살인자이거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활필수품의 유통을 가로막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곡식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뱅은 상업이 사회 안에서 인류의 보존을 위해 수행하는 설리적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해 낸 최초의 신학자였다. 중세시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루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상인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았으며, 상인들이 사치를 조장하고 생계비를 인상시키며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 장본인들이라고 비난하였다. 물론 갈뱅도 상업활동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선배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소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상업이 수행하는 본래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6. 이자에 대한 사상

① 교회는 이자수취를 금지하였지만 중세후기 이자대부는 보편화되었다.

중세의 스킨라철학자들은 빌려준 돈에 대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며, 교회는 775년 니케아종교회의 이후 수세기에 걸쳐 이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많은 예외를 허용했다. 이자대부는 제한된 주식회사의 형태 아래 허용되었는데, 대부분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랐으며, 여기에 대한 보상의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즉 대부를 해줌으로써 채권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부를 해줌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실이익을 상실한 채권자는 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를 해줌으로써 명확하게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위

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이자를 요구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던 것들로서 통치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용인되었다. 교회는 이러한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해냈기 때문에 교회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자대부는 보편화되었고 16세기 초엽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스페인의 군주 찰스 5세와 필립 2세는 훌륭한 카톨릭교도들이었지만 이자가 12%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합법이라고 승인했다. 헨리 8세도 이자제도를 승인했으며, 1545년에는 이자율을 10% 수준에 고정시켰다. 제네바에서도 종교개혁 이전부터 이미 이자대부가 보편적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이자율은 변동폭이 매우 컸다.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5%씩 연리 20%의 이자율로 대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6세기 초엽 제네바의 경제생활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3개월마다 한번씩 이자를 후취하던 제도가 폐기되었고 상인들과 은행가들은 제네바를 떠났다. 사보이와의 전투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불안에 종교개혁으로 인한 불안까지 겹쳐 제네바의 상황이 매우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신교의 난민들이 제네바에 몰려들자 제네바의 경제생활이 회복세에 접어들게 되었고 신용대출의 필요성도 새롭게 인식되었다. 5%에 머물러 있던 이자율은 1544년 6.6%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는 엄격했다.

② 산업대부에 대한 이자수취는 허용되어야 한다.

갈뱅은 이러한 국가의 법적 통제가 제네바의 산업을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갈뱅은 이자대부의 원리를 구체화시키게 되었다. 이 원리는 그의 선배 신학자들의 사상에 비하여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경제생활을 크게 촉진시켰다. 그러나 갈뱅의 이자대부 원리는 많은 측면에서 여전히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갈뱅은 모든 문제를 전승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그는 이자대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했다. 갈뱅은 경제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해결방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교훈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갈뱅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성경은 고리대금업과 그것의 남용을 비난한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이웃을 도와줄 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형태의 이자대부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갈뱅은 주장한다. 갈뱅은 소비대부와 산업대부를 분리하여 생각하였다. 소비대

부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대부를 말하며, 산업 대부란 이윤을 얻기 위한 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주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이자대부를 금지한 것은 소비대부에 대한 것이지만 산업대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갈뱅은 주장한다. 소비대부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지만 산업대부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자본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대부를 해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토지를 빌려주고 토지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갈뱅은 돈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를 거부하고, 돈도 다른 생산수단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따라서 갈뱅은 만약 모든 고리대금업을 금지한다면 불행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한 고리대금업자들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직한 대금업자들을 한꺼번에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③ 이자대부에 대한 제약과 정당한 이자율의 결정

갈뱅은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성의 참 모습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갈뱅은 이자대부를 허용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야기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제약을 가하였다. 첫째, 가난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돈을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 투자하는 행위는 탐욕에 의한 행위이다. 둘째, 법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가난한 자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셋째, 돈을 빌린 자가 대부를 통해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지 못하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넷째, 정당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갈뱅은 이와 같이 이자대부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돈의 불의한 세력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갈뱅은 어떤 이자율을 정당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였는가? 갈뱅은 재판적인 규범 설정을 거부하고, 두 가지 결정방식을 제시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감동 받은 참된 기독교인인 채권자는 하나님 앞에서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또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해야 한다. 표준 이자율을 설정할 때 국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고려함은 물론 공익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갈뱅은 이자율이 생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모든 이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의하여 지불된다는 사실을 주목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자대부의 허용은 역사상 큰 전환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갈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였고, 그의 후계자들은 더 많은 유효조항을 덧붙였다. 그들은 부란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반드시 사치, 방종, 쾌락 등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화폐거래도 모든 합법적인 경제생활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7. 요약 및 결론

갈뱅의 경제사상은 그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 지혜, 선하심이 번득이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아와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순간 자유를 상실하고 타락하게 된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완전한 피조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지만, 죽는 날까지 죄인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회개하여 새롭게 된 인간은 다시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엄격한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이 훈련은 자유 안에서의 금욕주의이며, 자기 자신을 소유하기 위한 자율적인 자제이다.

인간은 이와 같이 개별성을 갖는 존재인 동시에 사회성을 갖는 존재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동료 인간들과 협력함으로써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이다. 따라서 상호 교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부족을 서로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이러한 본래적 사회질서 또한 타락시키고 말았다. 본래적 사회질서의 회복은 참된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공동체를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 교회공동체 안에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회의 모습을 재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형상은 단편적인 뿐이다. 죄는 언제나 모든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은 제갈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면 완전히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되고 만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습적인 도덕법칙과 정부기구를 통하여 강요되는 국법이라고 하는 정치질서를 주셨다. 이 정치적 질서는 시간의 마침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질서이다. 완전한 질서는 최후의 심판 이후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할 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갈뱅의 이러한 인간관과 사회관은 그의 경제사상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로 나타난 사회의 타락은 다른 모든 생활과 마찬가지로 경제생활도 타락시켰다.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인 재물이 인간들의 사악한 마음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간들은 재물을 숭배하며, 재물에 봉사한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재물이 악과 결탁하여 피조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한 주의 위치에서 인간들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재물은 하나님의 위치로부터 쫓겨나 인간사회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노동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따라서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업은 철저히 없애야 할 사회악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설정해주시신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간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노동을 행함으로써 노동을 고통, 염려, 억압 등의 수단으로 타락시켰다. 이렇게 타락한 노동은 인간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로 말미암아 성화될 때 그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

임금은 인간의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인간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은 신성한 것이며, 다른 사람이 압수하거나 가로챌 수 없는 것이다. 임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야 하며, 그들이 받은 열매에 대하여 다같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정당한 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

상업은 상호 협력적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노동의 분업은 인간들의 독립성을 보여주지만, 또한 인간들이 사회 안에서 상호 의존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적에서 이탈하면 상업의 질서가 파괴되고 만다. 사기, 부정, 독점, 매점매석 등은 경제관계를 마비시키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상품과 용역을 배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범죄이다. 이렇게 파괴된 상업질서는 복음의 전파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복음을 받아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자유의 윤리를 따르게 되고, 생활에 필요한 경제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자대부의 문제는 산업대부와 소비대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이윤을 얻기 위한 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주는 산업대부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자본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소비대부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가난하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으로서 탐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타락한 인간성과 사회의 회복은 타락한 경제생활 또한 회복시켜줄 수 있다. 그러나 거듭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도 모두가 다 기독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생활에 대하여 통제와 제약을 가해야 한다. 꺾빡은 경제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이러한 꺾빡의 경제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들, 즉 부익부 빈익빈 문제, 환경파괴 및 오염 문제, 자원고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아와 자유

를 추구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행위가 무질서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은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의 구체적인 형태들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무질서와 혼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적 질서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인간들의 탐욕으로부터 발생한다. 탐욕은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생긴다. 만약 인간들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생존케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탐욕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독립된 힘이며, 오로지 자신의 노력의 덕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긴다. 탐욕은 인간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끝없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추구하게 하고, 생산물의 분배에 있어서는 보다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하며, 상업활동에 있어서 부정과 사기, 매점매석 등의 행위를 하게 만든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며, 환경파괴와 오염 및 자원고갈 현상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꺾빡의 가르침에 따라 재물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존키 위하여 인간들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탐욕을 버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꺾빡은 우리에게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노동과 임금에 대한 가르침이 그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업과 저임금으로부터 발생한다. 오늘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비용최소화를 위하여 글로벌리제이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전략의 하나가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국가를 찾아 생산공장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장이 떠나는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꺾빡에 의하면 노동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일터로부터의 해고시키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행위와 같다. 또한 임금도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인간을 보존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노동과 임금에 대하여 이러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질 때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제시한 꺾빡의 경제사상의 현실에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에 기초한 기독교적 경제윤리요, 경제적 금융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 적용에 있어서 기업이 이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생존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겠지만 환경파괴와 오염 문제, 자원고갈 문제 등은 장차 인류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도 수요부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할 때 기독교인들의 참된 믿음에 입각한 경제활동은 인류의 장래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로날드 S. 윌레스(나용화 역) 1988. 「갈뱅의 기독교 생활원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로날드 S. 윌레스(박성민 역) 1995. 「갈뱅의 사회개혁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스탠포드 리드 편저(홍치모 외 역) 1993. 「갈뱅이 서양에 끼친 영향」 서울: 크리스찬서적.

앙드레 비엘러(홍치모 역) 1985. 「갈뱅의 경제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이양호 1997. 「갈뱅: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정성구 1995. 「갈뱅주의 사상대계」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존 갈뱅(김종흠 외 역) 1988. 「기독교강요」(상, 중, 하) 서울: 생명의말씀사.

존 갈뱅(이형기 역) 1989. 「갈뱅의 경건」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프레드 그레함(김영배 역) 1986. 「건설적인 혁명가 갈뱅」 서울: 생명의말씀사.

Biéler, André 1961. *La Pensée E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Genève: Librairie de L'Université Georg & C^{ie} S.A.

2001학년도 한일장신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및 분석

박 대 우*

〈 목 차 〉

I. 서론	2. 학교·학부 및 계열선택
1. 문제설정	3. 대학생활
2. 연구배경 및 목적	4. 가치관·의식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V. 결론
II. 연구방법	1. 개인신상 관련사항
1. 조사대상 및 방법	2. 학교·학부 및 계열선택
2. 조사도구 및 조사내용	3. 대학생활
3. 자료처리	4. 가치관·의식
III. 조사결과 및 분석	참고문헌
1. 개인신상관련 사항	<부록> 신입생 실태조사

I. 서 론

1. 문제설정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전형제도는 크게 보아 십여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는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일원화된 관리 방식,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 획일적인 선발 방식, 대학간의 서열 및 등급화, 사교육비 가중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과정이었다.

종전의 대학 입학전형은 우리사회와 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대학입학 전형 방식이 모든 수험생을 시험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방식이 고착되어, 대학은 학생이 취득한 수능 성적 총점과 내신 성적 등을 합산한 점수로 입학 당락을 결정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여 대학진학을 지도하기보다 수능 성적에 따라 합격 가능한 대학을 서열화 시켜 작성한 「대학 입학 배치 기준표」에 학생의 성적을 대비시켜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

본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부교수